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허정*      | 학번   |                           |
| 파견국가 | 필리핀      | 파견도시 | 수빅                        |
| 파견대학 | 필리핀대학마닐라 | 기간   | 2017. 1. 14(토) ~ 2. 10(금) |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어학원이 마닐라 대학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닐라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수빅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닐라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대학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학교 입구에 경찰이 있어 들어가려면 가방검사 같은 것을 받아야합니다. 학생들과 보낼 시간이 주어지는데 학생들이 착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국 학생들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친절합니다.</p>  |
| 수업   |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먼저 레벨테스트를 봐서 5명 5개조로 나눕니다. 반마다 교재가 다르며 일대일 수업마다 수업은 같지만 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의 그룹 수업과 3개의 일대일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그룹 수업에서는 문법, 독해, 청해, 멀티미디어, 캘런 수업이 있었고 일대일 수업에서는 단어, 이슈, 패턴 수업이 있었습니다.</p> <p>문법, 독해, 청해는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이고 그 중 청해는 이번부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CNN 뉴스를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수업은 영화 예고편이나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끼리 직접 뮤직비디오와 광고 2편을 만드는 과제가 있습니다. 캘런 수업은 빠르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고 제일 부담이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단어 수업은 본인의 실력별로 책이 달라 단어를 배우고 예문을 만들어보는 수업이고 이슈 수업은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는 수업입니다. 패턴 수업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기본 패턴에 대해 배우고 이에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p> <p>과제는 독해 수업에서 문제를 풀거나 간단한 에세이를 써오는 것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수업은 앞서 말한대로 조별과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숙제가 없었습니다.</p> |

|          |  |
|----------|--|
| Activity |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br>-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
|          | 첫째 주 금요일에 마닐라 대학을 방문했고 둘째 주 금요일에 고아원 방문과 토요일에 안바야 코브라는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에 요트 체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스킨스쿠버같은 액티비티는 못하게 했습니다. 위의 활동들은 다 무료였고 식비만 개인이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방문 전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사느라 300페소를 전원 걷었습니다.                               |
|          | 고아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시간 정도로 오래 머물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적지 않고 대부분이 영어를 할 줄 몰라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
|          | 안바야코브 리조트는 해변 바로 앞에 있는 리조트로 어학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리조트 안의 수영장은 수영복만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반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들어갈 수 없어 수영복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리조트 안의 음식점은 약 3~400페소 정도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바나나보트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는데 5명에 1500페소입니다. 머물렀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
|          | 요트 체험은 무료였고 학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요트 탑승 장소가 있고 요트를 타고 40분정도 나가게 됩니다. 정박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남짓이며 염분이 높아 피부가 따갑습니다. 식사는 학원에서 치킨을 제공해 주어서 따로 식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현지 기후 및 유의점<br><br>겨울에 필리핀에 가면 건기이기 때문에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햇빛이 뜨겁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긴팔도 챙겨주세요. 건기라고 해서 비가 안 내리지는 않습니다.   |
| 안전 | 현지 안전 상황<br><br>어딜가나 경찰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입장할 때도 음식점 들어갈 때도 가방검사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외국이다 보니 정신 바짝차리고 택시는 택시정류장에 가서 타고 밤에는 웬만하면 모여다니거나 길을 잘 아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숙소 | 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br>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

|    |  |
|----|--|
|    | <p>어학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3인 1실에서 지냅니다. 방 배정은 도착하면 이미 나와있고 처음보면 화장실에 놀랄 수 있지만 적응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각각 책상, 옷장, 침대가 있고 냉장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기숙사 통금이 있고 금, 토요일은 12시 나머지는 10시였습니다. 기숙사 복도에 별레가 꽤 많고 방안에 음식물을 개봉한 채로 놔두면 개미가 꼬입니다. 한 번 꼬이면 잘 막지 못하니 한 번 개봉할 때 다 먹거나 최대한 높은 곳에 매달아 놓으세요</p>           |
| 식사 | <p>학교식당( 0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제외하곤 다 한식으로 나옵니다. 아침에는 빵이나 한식이 번갈아 나오며 처음에는 먹기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맛있게 먹습니다.</p> <p>때때로 저녁에 나가서 먹기도 했는데 대체로 한 끼에 3~400페소, 비싸면 500페소까지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며 음료수를 곁들인다면 그 이상 나오게 됩니다.</p> |
| 교통 |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밖으로 나가려면 FB를 타거나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FB는 하버포인트까지 13페소이고 택시는 부르게 되면 200페소 정도입니다. FB를 타고 가는 걸 추천하며 거리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버포인트 근처에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타면 120페소입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 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유학허가증(SSP),<br>여행자보험 | 735,4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생활비                      | 약 500,000 |                |
| 합계                       | 1,235,400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공항세가 600페소 고아원 방문을 위한 돈 300페소가 의무적으로 드는 돈입니다. 공항세는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올 때 공항에서 내야하는 돈입니다. 돈을 환전할 때 달러로 미리 환전해서 갈텐데 웬만하면 100달러짜리로 가져가는게 이득입니다. 현지에서 한국 돈을 페소로 바꿀 수 있지만 달러에서 페소로 바꾸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되어 애초에 돈을 넉넉히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또 생각보다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놀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나갈 때 밥 먹고 쇼핑하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 돈을 조금 가져오신 분들은 더 환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버포인트에서 바로 택시를 탈 수도 있지만 길을 건너 미니스탑이 있는 길로 쪽 가면 택시 정류장이 따로 있어 더 싸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버포인트 바로 앞에서는 200페소, 택시정류장에서는 120페소입니다. 그리고 FB를 타는 곳은 하버포인트에서 오른쪽 주차장 끝에 팻말에 CUBI라고 써있는 곳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학원에서 FB를 타고 하버포인트, SM몰, 로얄 마켓을 갈 수 있습니다. 하버포인트는 13페소, SM몰은 10페소, 로얄 마켓은 8페소만 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마켓은 SM몰 건너편에서 지프니를 타면 되는데 퍼블릭 마켓에 가냐고 물어보고 타면 됩니다. 지프니는 7페소입니다.

간혹 바닷가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때는 음식점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던가 하얀색 차에 택시라고 정확히 써있는 차를 타셔야 합니다. 가끔 정식 택시가 아닌데 택시라고 하면서 태우려고 하는데 돈을 자꾸 다르게 불러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바닷가에서 학원까지 택시로 200페소로 충분합니다. 이 곳 택시가 거리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찰제입니다. 사람이 한 택시에 많이 타면 가격을 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00페소는 넘지 않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 그 곳 생활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았고 돌아온 지금도 다시 어학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이 하루에 8개로 많지만 그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룹수업에서 같은 조원들과 친해지고 조별과제도 만들면서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또 일대일 수업에서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일대일로 어떻게 얘기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막상 수업에 들어가니 선생님들도 매우 좋고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부담없이 수업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정도 들어 돌아온 지금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계기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컸다면 지금은 일단 내뱉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하지 식의 생각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국제교육 교류처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어학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지막 졸업식 날 전체 사진



마닐라 대학생들과 함께



어학원 수영장에서 다 같이 놀았던 날



안바야 코브 리조트 근처 해변



수빅 투어한 날 단체로 저녁



요트 타러 간 날